

# 일제 파시즘기(1937-1945) ‘멸사봉공(滅私奉公)’ 표어의 의미장\*

문 경 득\*\*

- I. 머리말
- II. ‘멸사봉공’의 출현과 의미장
- III. 비일상의 일상화, ‘멸사봉공’
- IV. 맺음말

## 「국문 초록」

멸사봉공의 사전적 의미는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씀’이다. 그러나 사실 이 표어는 일제 파시즘이 대두되는 1937년부터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멸사봉공은 일제 파시즘을 위한 표어임과 동시에 당시 사회를 표상하는 개념이다. 본 논문은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제 파시즘기 신문매체에 등장하는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을 분석하여 그 맥락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멸사봉공은 멸사와 봉공 같은 전통적인 개념이 조합되어 탄생한 표어이다. 그러므로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관리 개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거나 공동체나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의미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연구교수.

은 전쟁을 미화하고 국기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라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표어는 봉공에 방해가 되는 ‘사적 영역’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표어였으며,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과 윤리의식을 주입하고자 했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적 에토스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멸사봉공이란 표어는 조선의 전통적 유교문화와는 단절되어 있으며 근대적 병리인 일제 파시즘을 표상하고 있다.

또한 멸사봉공은 일제 파시즘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의 생산영역에 대한 통제를 정당화하는 표어이기도 했다. 특히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통제는 국가와 자본에 의한 생산통제의 일환이었다. 나아가 재생산영역인 일상에서까지도 국민의 행동을 규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멸사봉공이라는 표어의 의미장은 일제 파시즘이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제어 : 개념사, 공, 사, 전체주의, 파시즘, 일본제국주의, 경제통제, 일상통제

## I. 머리말

멸사봉공(滅私奉公)이라는 표어는 사전적으로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씀’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그러나 ‘멸사봉공’이라는 표어는 1937년에 처음 등장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전적 의미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937년이란 시기는 일본 군부가 정권을 잡고 ‘루거우차오[蘆溝橋] 사건’을 날조하여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이었다. 이후

이 '멸사봉공'이라는 표어는 전쟁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멸사봉공'은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1937년부터 1945년 패전까지 이어지는 광기어린 '파시즘 체제'를 표상하는 역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문제는 이 '멸사봉공'이 일제 파시즘과 함께 탄생한 표어임에도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이 해방된 이후 거의 80여 년의 시간이 지난 21세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자는 선비정신을 설명하면서 멸사봉공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고,<sup>2)</sup> 2022년 현재에도 공무원들이 공직에 임하는 각오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쓰인 사례가 있다.<sup>3)</sup> 이처럼 '멸사봉공'이란 표어가 일본 파시즘이라는 맥락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이유로는 오래전부터 유교문화권에서 멸사봉공과 비슷한 뜻의 여러 성어가 통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박정희 중심의 개발독재 체제가 만주국에서부터 비롯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 만큼,<sup>4)</sup> 우리 사회는 일제 파시즘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 사회 이면에 일제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전

1) 일반적으로 1937년부터 1945년까지를 '전시체제기'라고 시대를 구분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해당 시기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일제 파시즘기'라고 명명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방기중, 「일제파시즘 인식의 혼돈과 재인식의 방향 - 최근 일본학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도서출판 혜안, 2006, 21-66쪽 참조.

2) 김일환, 「선비정신의 현대적 모색」, 『동양문화연구』 16, 2013, 95, 111, 115쪽.

3) 빅카인즈([www.bigkinds.or.kr/](http://www.bigkinds.or.kr/)) 기준 1990년부터 2022년까지 1,980건이 검색된다(검색일 : 2022년 11월 30일). 가장 최근의 기사에서도 9급 공무원들에게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참된 공직자상”을 다지려는 뜻에서 국립괴산호국원 참배행사를 기획했다고 소개하고 있다(《충북일보》 2022년 11월 1일 「9급 신규 국가공무원, 국립괴산호국원 참배」).

4) 한석정, 『만주 모던 - 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 지성사, 2016.

체주의적 인식이나 구조가 남아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보게 된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멸사봉공이라는 표어가 어떤 의미와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살펴본 연구는 없다. 공(公)과 사(私) 개념을 다루면서 일본의 공 개념을 설명하거나 중국과 조선의 공 개념과 차이점을 거론하면서 잠깐 언급하는 경우와<sup>5)</sup> 여기서 파생되어 공공성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일부 거론되는 정도이다.<sup>6)</sup> 이외에도 유교적 근대성에 관한 연구,<sup>7)</sup> 전시체제가 무도(武道) 교육에 관한 연구,<sup>8)</sup> 1930년 의

- 
- 5) 김경옥, 『‘公·私’의 관점에서 본 戰後 일본 교육의 이데올로기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정현, 「동아시아 공(公)개념의 전통과 근대 공동체의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2008 ; 박규태, 「공사(公私) 개념의 일본적 ‘수용문제’ -서구의 공사 개념과 후쿠자와 유키치」, 『비교일본학』 30, 2014 ; 박규태, 「국가신도의 국체신학과 공사(公私) 관념 -《국체의 본의》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6, 2014 ; 배병삼, 「유교의 공과 사」, 『동서사상』 14, 2013 ; 배병삼, 「현대 한국인의 〈논어〉 -충효(忠孝)라는 독침」, 『동서인문』 3, 2015 ;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공과 사」,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 신백훈, 「『예기(禮記)』의 ‘천하위공(天下爲公)’ 해석(解釋)에 대한 고찰(考察)」, 『유교사상연구』 56, 2014 ; 이승환, 「한국 및 동양의公私觀과 근대적 변용」, 『정치사상연구』 6, 2002 ; 이재규, 『중국 근대기 변법사상(變法思想)에 나타난 전통적 ‘공(公)’ 개념의 변용 -강유위와 양계초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장현균, 「공사(公私) 관념의 변천을 통해 본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공성 담론」, 『한국행정학보』 55-4, 2021 ; 황병주, 「식민지 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재구성」, 『사회와 역사』 73, 2007.
- 6) 김경옥, 「공공성(公共性) 관점에서 본 일본(日本)의 전통적 공(公)·사(私) 관」, 『일어일문학연구』 73-2, 2010 ; 박규태, 「현대일본사회와 유교 -논어·공공성·마코토」, 『비교일본학』 34, 2015 ; 야규 마코토, 「동서양 공공성 연구와 한국적 공공성 탐구 -교토포럼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퇴계학논집』 20, 2017.
- 7) 나중석, 「전통과 근대, 한국의 유교적 근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30, 2015.
- 8) 최규진, 「전시체제가 ‘멸사봉공’의 신체, 일본정신과 무도(武道)」, 『역사연구』 44, 2022.

산문묘에 관한 연구,<sup>9)</sup> 근대 수신교과서 비교연구<sup>10)</sup> 등에서 여러 주제의 연구논문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연구경향 자체는 멸사봉공이라는 표어가 여러 주제와 연결되어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볼 수 있는 주제라는 점을 방증한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 파시즘기 동안 '멸사봉공'이라는 표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개념사' 방법론을 채택하여 일제강점기 신문에서 멸사봉공 표어가 등장하는 기사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sup>11)</sup> 여기서 개념사란 언어와 실재 사이의 관계가 모호하다고 보고, 개념을 정의의 대상이 아닌 해석의 대상으로 삼는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행위자가 경험한 '현재'를 표현하고 있는 사료의 언어(과거의 현재)와 우리가 경험한 '과거'를 표현하고 있는 현재의 언어(현재의 과거) 사이의 차이점을 밝혀, 과거 행위자가 구성한 역사적 실재와 현재 역사가가 만든 역사적 실재를 의미 있게 소통시키려는 연구방법론이다.<sup>12)</sup> 이 개념사 방법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념과 사회적 콘텍스트의 관계를 분석하는 롤프 라이하르트(Rolf

9) 설주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유교 윤리 소환과 경제 경쟁 프로젝트 - 익산문묘(益山文廟)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41, 2020.

10) 이병담, 『근대일본과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교과서 비교』,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1) 더 넓은 범위의 자료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부득이하게 2022년 12월 현재 <대한매일신보>와 <매일신보>, <조선신문> 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온라인에서 검색이 가능한 신문 매체로 한정하였다. 또한 <매일신보> 등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서비스하는 일부 신문은 본문 검색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기사는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이밖에 <조선신문>과 <조선시보>의 경우, 일본어 신문이지만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이 한국어 기사와 큰 차이가 없어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다.

12)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2011, 27-34쪽.

Reichardt)의 ‘사회사적 의미론’을 활용하여, ‘멸사봉공’이라는 표어가 특정 텍스트 속에서 어떻게 ‘의미장’이 배치되는지를 구조화하여 분석하였다.<sup>13)</sup>

이를 통해 1937년 시점에 출현한 멸사봉공이란 표어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준 전통적인 개념들을 살펴보고, 멸사봉공의 일반적인 의미부터 일제 파시즘기라는 특정 시기 동안 나타난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일제 파시즘 체제가 멸사봉공이라는 표어를 통해 사적 영역을 어디까지 억압하고 통제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 II. ‘멸사봉공’의 출현과 의미장

### 1. 멸사+봉공 ≠ 멸사봉공

#### 1) 멸사봉공의 역사적 배경

- 13) 로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연구방법론에 관해서는 나인호, 앞의 책, 82-92쪽; 김학이, 「로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09, 128-175쪽 참조. 단, 이 방법론은 개념을 추출하기 위한 반대한 자료의 축적과 분석을 수행하고 이후 언어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출된 개념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자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의미장 분석의 방법론만 채택하였다. 의미장 분석 방법론은 어떤 개념이 특정 텍스트 속에 갖는 ‘의미장’을 구조화하여 해당 개념과 관련된 단어의 사용 범례를 다음과 같은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이다. ‘계열관계’는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단어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배치된다. ‘통합관계’는 개념들을 내용적으로 채우고 설명하고 특징짓는 단어들로 구성된다. ‘기능적 반의어’에는 모든 체계적 반대개념이, ‘역사적 사실’에는 역사적 사건, 인물, 원인 등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이 배치된다. 이렇게 배치된 의미장을 통해 공시적 차이와 통시적 변화를 가시화할 수 있다.

멸사봉공 표어는 1937년에 처음 등장했지만 의미가 비슷한 성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의 유교문화권에서 통용되었다. 예를 들어 『논어』 「현문」에서 자로(子路)와 성인(成人)에 대해 논하면서, 공자는 “이를 보고 의를 생각하며,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見利思義 見危授命]……”라고 말했다. 『사기』의 「염파인상여열전」에서도 재상 인상여(藺相如)가 염파(廉頗)장군을 피하면서 “나라의 급한 일이 먼저이고 사사로운 원한은 나중이기 때문이다[以先國家之急而後私讎也]”라고 한 말에서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성어가 나왔다. 이외에도 진충보국(盡忠報國), 대의멸친(大義滅親), 살신성인(殺身成仁), 사생취의(捨生取義) 등의 성어가 사전적 의미의 멸사봉공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이처럼 사전적 의미의 멸사봉공은 고전에서부터 비슷한 성어가 존재했으며 21세기까지도 용례가 확인된다

또한 ‘멸사봉공’이란 표어를 구성하는 ‘멸사’와 ‘봉공’이라는 두 단어도 원래부터 존재하던 표현이었다. 멸사의 경우, 이미 『서경』에서 “공으로써 사를 멸하면 백성들이 믿고 복종할 것이다[以公滅私 民其允懷]”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표현이다.<sup>14)</sup> 신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통감 시절인 1906년 시점에 이 구절을 인용해 사심(邪心)을 버리고 공으로써 사를 멸하자고 권고하기도 했고,<sup>15)</sup> 1934년에 정인보(鄭寅普)가 쓴 칼럼에서도 수행은 자기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극기, 질욕(窒欲), 멸사에 관한 언급하기도 했다.<sup>16)</sup> 이처럼 전통적인 ‘멸사’는 개인의 희생보다는 ‘수양’에 더 중점을 둔 표현이었다.

봉공의 경우, 우리나라의 자료에서는 『고려사절요』에서부터 보이며 주로 ‘관직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한다’는 뜻이었다. 그래

14) 『서경』 「주서」 「주관(周官)」 15장.

15) <대한매일신보> 1906년 8월 17일 「伊藤勸告」.

16) <동아일보> 1935년 1월 3일 「五千年間朝鮮의[일] (三)」.

서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서 「봉공육조」라는 편명을 등장하기도 한다.<sup>17)</sup> 그렇기에 조선시대부터 이미 멸사봉공과 비슷하게 ‘척사봉공(斥邪奉公)’이라는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일본에서 봉공은 가마쿠라(鎌倉) 막부 시절 막부의 쇼군(將軍)이 고케닌(御家人)이 쌍무적으로 맺은 계약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인 ‘고온(ごおん, 御恩)’과 ‘호코(ほうこう, 奉公)’에서부터 등장한다. 이때 고온은 영지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영지를 수여하거나 관리로 임명하거나 분쟁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호코는 쇼군이 내려준 ‘은혜’에 보답할 의무로 구체적으로는 군사적으로 교토를 경비하고 전쟁시 군사를 거느리고 참여하거나, 경제적으로 건축과 수리에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을 의미했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의 ‘공’ 개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므로<sup>19)</sup> 당연히 봉공 개념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조선의 ‘공’은 국가나 왕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공정성’, ‘공평성’ 등 윤리원칙의 의미도 있었다.<sup>20)</sup> 그러므로 ‘공론(公論)’을 예로 들면, 유교적 공론은 ‘모두가 동의한 의견이므로 옳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옳은 의견이라 모두가 동의한다’라는 뜻이었다.<sup>21)</sup> 따라서 ‘봉공’의 의미에도 『논어』에서 “군자(君子)답다. 거백옥(蘧伯玉)이여! 나라에 도(道)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道)가 없으면 거두어

17) 정약용 지음/다산연구회 번역, 『(역주) 목민심서』, 창비, 2018.

18) 『명재유고(明齋遺稿)』 33권, 「집의(執義) 종형(從兄)에게 제사 지낼 때의 제문」. 다만 2022년 12월 기준으로 딱 1건만 확인할 수 있어 흔히 사용된 표현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9) 한중일의 ‘공(公)’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김정현, 「동아시아 공(公)개념의 전통과 근대 공동체의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2008 참조.

20) 이승환, 「한국 및 동양의公私觀과 근대적 변용」, 『정치사상연구』 6, 2002, 50-53쪽.

21) 김경래, 「조선 공론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이이의 공론개념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5, 2012, 134-138쪽.

속에 감추어 두는구나!”<sup>22)</sup>라고 말한 것처럼 윤리적 가치평가가 내포되어 있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공’과 ‘사’ 개념이 중국이나 조선과 다르게 윤리적 성격이 없었으며, ‘공’이 ‘사’의 우위에 있으면서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개인(私)이 속한 마을 등의 공동체부터 ‘공’이지만, 동시에 상위의 ‘공’인 번(蕃)에게는 마을 공동체는 ‘사’가 되었고, 번 또한 상위의 ‘공’인 막부나 천황에게는 다시 ‘사’로 취급되는 식이었다. 즉, 개인은 집단에, 하위집단은 상위집단에 중층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서 윤리적 가치평가도 ‘사’적 이익의 추구는 허용되지 않았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최상위에 천황과 국가가 ‘공’이 되었고 옹고 그림의 가치판단과는 상관없이 국가와 천황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봉사는 신민의 의무로 규정되었다. 즉, 국가적 ‘공’을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개인이 국가에 매몰되는 관계로 구성되었다.<sup>23)</sup>

## 2) 멸사봉공의 일반의미

이미 존재해온 멸사와 봉공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멸사봉공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욕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힘쓴다’는 사전적 의미에 가까웠다. 특히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관리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이는 멸사봉공 표어가 처음 출현한 1937년 시점부터 1945년까지 일제 파시즘이 창궐하던 기간에도 확인되고 있다. 즉, 관리가 새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며 자기 일에 집중하겠다는 표현으로 ‘멸사봉공’을 인용하거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화나 훈시에서 나

22) 『논어』 「위령공(衛靈公)」 6장.

23) 김정현, 앞의 논문, 52-53쪽 ;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지음/고희탁 옮김, 『한단어 사전, 공사』, 푸른역사, 2013, 70-73쪽 ; 김경옥, 「공공성(公共性) 관점에서 본 일본(日本)의 전통적 공(公)·사(私)관」, 334-340쪽.

라와 백성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탐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며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멸사봉공 표어를 사용했다.

먼저 공무원의 멸사봉공을 요구하는 발언은 1937년부터 신문 기사에서 등장한다. 지방제도를 포함한 여러 개혁조치에 대한 가와다라 가쿠치(河原田稼吉) 내무상의 훈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민대중과 접촉하는 행정사무의 일선에 있는 관리들은 솔선하여 멸사봉공의 열의와 각오를 굳게 하고 위기극복에 혼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부하 관리들이 안일함을 배제하고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을 배양’하기를 요구했다.<sup>24)</sup>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미쓰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경무국장의 시국강연 방송 말미에서도 ‘조선의 경찰은 적으나마 멸사봉공의 기회를 얻었으므로 상하일체(上下一體)가 되어 불면불휴(不眠不休)하여 총후(銃後)의 불안이 없도록 치안에 만전을 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sup>25)</sup>

관리들이 취임하면서 멸사봉공하겠다고 발언하는 기사는 1938년 시점부터 보인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총재로 취임한 가와시마 요시유키(川島義之)는 취임 인사의 말미에 ‘멸사봉공의 일념에 의해 총재의 직무를 맡았다’고 발언했다.<sup>26)</sup> 1939년에는 부의원에 출마할 입후보자의 공약 중에 ‘선공후사 멸사봉공’하겠다는 내용이 보이고,<sup>27)</sup> 이후 새로 취임하는 중앙과 지방의 고위관리들도 자신들의 각오를 ‘멸사봉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기사에서 봉사해야할 대상은 당연히 국가였고 멸해야 할 ‘사(私)’

24) 《조선일보》 1937년 5월 19일 「地方行政刷新에 格別히用意努力」.

25) 《조선일보》 1937년 7월 31일 「北支事變에直面하여 輕舉妄動을慎戒하라」.

26) 《동아일보》 1938년 12월 7일 「總動員의 強化圖謀 長期建設에 邁進 國民精神總動員」.

27) 《조선일보》 1939년 5월 16일 「銃後道民總動員之秋 精神的으로物資的으로」.

는 대체로 공무원 자기 자신이나 개인의 이익을 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왕직(李王職) 토지의 불하와 관련해서 일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기사도 있고<sup>28)</sup> 공무원들이 대우가 좋은 영리회사로 전업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기적 타산을 버리고 몰아(沒我)의 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직(聖職)에 봉사하라'는 기사도 있다.<sup>29)</sup>

이처럼 멸사봉공 표어에서 관리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전통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를 지난 현대까지도 관료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관리의 도덕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능력주의 기반의 관료제는 공공에 대한 봉사의 윤리적 근거인 목표의식과 목적론이 취약했다.<sup>30)</sup> 즉, 봉건제의 세습적 귀족과 관리는 그 지역의 신민들과 운명공동체였으므로, 통치의 잘잘못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계속 직책이 바뀌는 비세습적 공직자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했으므로 공공의 선보다는 자신에게 보상이 되는 '다음 경력'에 더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지방관을 예로 든다면, 그들은 자신이 부임한 지역을 끝까지 책임지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현저히 약했다. 심지어 승진을 위한 뇌물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지역에서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착복하는 등의 '민폐'를 끼칠 수도 있었다. 현대에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腹地不動)'하는 양상이나 기업에서 오너의 직접 경영과 전문경영인의 경영이 다르게 작동하는 양상 등도 능력주의 기반 관료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중국과 조선에서는 비록 '수기치인(修己治人)'과 같은 유교의 가르침

28) 《조선일보》 1939년 3월 16일 「公職者の警醒」.

29) 《매일신보》 1941년 8월 6일 「滅私奉公의理念으로聖職을固守하라」.

30)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위험성』, 너머북스, 2012, 114쪽.

이 실제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경전을 공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과거를 치러 관료를 선발하였다. 즉, 관료에게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 윤리적 근거와 목표의식을 부여하여 ‘관료적 책임성’ 문제가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했다.<sup>31)</sup>

일본의 경우에도 메이지유신 전후로 봉건제가 붕괴하고 본격적으로 관료제가 시행되자 그 구조적 문제로 인해 관리의 책임의식과 도덕성의 문제가 두드러졌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미 1882년부터 「행정관리복무기율」을 제정하여 천황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규율로서 관리를 통제하고자 했다는 점도 그 방증일 것이다.<sup>32)</sup> 그러므로 관리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멸사봉공 표어 역시 관리가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국가에 봉사하기를 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등장하고 있다면, 선공후사, 견리사의 등의 유교적 표현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멸사봉공이란 표어가 전통시대의 유교적 가르침처럼 관리의 도덕성 함양에 효과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제도와 같은 제도부터 향약이나 제사 같은 일상생활까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조선도 근대로 넘어오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충성의 대상이 임금에서 국가로 변화했고, 유교의 가르침도 철학과 종교라는 서양철학의 개념의 수용과 함께 산일(散逸)되면서 관료의 도덕성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sup>33)</sup> ‘유교화’의 정도가 미진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론, 그리고 제도와 실천 모두 미비했던 일본으로서는<sup>34)</sup>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31)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민병희 옮김, 앞의 책, 224-226쪽.

32) 김종식, 「근대일본의 관료규율 형성에 대하여 -1882(명치15)년 행정관리복무기율의 제정을 중심으로」, 『사림』 35, 2010, 361-366쪽.

33) 광금선, 「1898년 독립협회의 정치기획과 ‘충군애국(忠君愛國)’」, 『역사와 현실』 107 ; 문경덕, 「‘조선유학’과 ‘조선유교’ 표현의 개념사」, 『역사연구』 43, 2021.

34) 단적인 예로 인샤오싱(殷曉星), 「일본의 향약 이론의 수용과 변용 -근세

관리의 도덕성 제고 시도가 효과적일 수가 없었다.

실제로 관리들의 발언에서 등장하는 멸사봉공 표어의 허구성은 이미 당대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1939년 아베 노부유키(阿部 信行) 신임 총리와 기자단의 회견에서 내각의 총친화(總親和) 관련하여 문의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멸사봉공인가?”라고 묻자 아베 총리는 “아니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sup>35)</sup> 이에 대해 다음날에 「색연필(色鉛筆)」에서 이 문답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평하고 있다.

…… 이 선도(禪道)의 문답가튼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 차치하고 『멸사봉공』이란 말을 생각해보면 그 뜻이 거룩하나 봉공한다는 당사자의 입으로 이말이 나온다면 본래의 뜻은 사라진다 ▲ 그뿐아니라 말하는 당자의 위선이 들어나는 듯 해서 불쾌하다 …… 36)

뒤이어 “나는 무언실행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계획이 없는 것을 숨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동양의 『덕』은 『무언』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첨언하고 있다. 즉, 멸사봉공하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결국 관리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멸사봉공 표어는 별다른 윤리와 가치 지향 없이 오로지 국가에 대한 자기희생적 봉사만 강조하고 있었다. 실제로 관리의 도덕성과 관련된 기사의 발화자를 살펴보면 대체로 취임사나 착임사를 신문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위 관료가 대부분으로, 복무의 각오나 개인적 도덕심을 넘어서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있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미쓰하시 고이치로와 가와시마 요

에서 근대로」, 『공존의 인간학』 1, 2019을 보면 일본이 향약을 수용한 수준을 알 수 있다.

35) 《조선일보》 1939년 9월 1일 「무슨일이든지 國策을基幹으로」; 《동아일보》 1939년 9월 1일 「十閣僚가一體로 所信대로盡力!」.

36) 《조선일보》 1939년 9월 2일 「色鉛筆」.

시유키의 발언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멸사봉공 표어는 일제 파시즘기에 등장하고 있어 일반적인 의미조차 당시 전시체제와 무관하지 않았다. 1942년 시점의 기사에서는 관리가 ‘대동아전쟁’ 즉,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승리를 위해 멸사봉공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sup>37)</sup> 좀 더 살펴보면, 관리 개인의 멸사봉공이라기보다는 ‘군민과 더불어 일역전심봉공(一億專心奉公) 할 각오’라던가 ‘백만부민의 선두에서 서서 멸사봉공을 할 생각’ 등의 표현처럼 각각 자신이 통치하는 군민과 부민과 함께 하겠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그 지향도 ‘인의 화(和)’, ‘관민총친화(官民總親和)’, ‘일치단결’처럼 전체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사의 수족’처럼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표현도 있다.(<표 1>)

<표 1> 관리의 취임사에서 보이는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인의 和, 官民總親和, 國家, 公益, 대동아전쟁의 최후 승리, 황민황도	郡民과 더불어 一億專心奉公할 覺悟, 國民의 一員, 奉公의 決意, 總力運動, 獻身奉公, 上司의 手足, 減私奉公할 覺悟, 減私奉公을 다할뿐, 잇는 힘을 다하여 백만부민의 선두에서 서서 멸사봉공을 할 생각,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치단결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上原敏, 江原道 會計課長, 淮陽郡守 大東亞戰爭, 古市進, 京畿道 內務部長, 京城府尹	獨善主義, 물불

37) <매일신보> 1942년 2월 17일 「減私奉公할 覺悟-上原 新 淮陽郡守 談」;  
 <매일신보> 1942년 5월 24일 「百萬府民先頭에서 減私奉公을 다할 뿐  
 - 京城府 尹榮轉의 古市道內務部長 談」.

또한 열사봉공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나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집단이나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부터 개인의 희생은 필연적이었다. 도시의 탄생과 농경의 시작이라는 인류사적 '혁명'의 이면에는 자유롭게 살던 인간은 강제로 잡아다 고된 노동을 시키는 통제정책이 존재했다. 즉, 국가와 문명을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을 집단과 공동체에 맞게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sup>38)</sup> 실제로 중국과 조선의 공 관념이 일본과 다르게 윤리적이고 가치지향적이었다 하더라도<sup>39)</sup> 일본처럼 윗사람과 같은 높은 지위, 조정이나 국가와 같은 영역을 지칭하는 용례도 분명히 존재했다.<sup>40)</sup>

그러므로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윗사람이나 더 큰 집단에 대한 의무와 희생을 강조하는 관념은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유교에서는 지위의 이름(名)을 배정하고 그에 따라 지위와 직분, 그리고 그에 따른 보답, 헌신, 책임의 행위를 차등적으로 분배하였다. 이처럼 혈연적인 친소와 개인의 어질고 불초함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주어지고, 차등적 지위에 따라 부여된 책임이 바로 유교의 분의(分義)이다.<sup>41)</sup> 또한 재가를 금지시키면서 '열녀(烈女)'의 미담을 강조한 사례 또한 집단과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sup>42)</sup> 대한제국기에는 군주와 국가에 대해 복종하고 충성하며 의무를 다하는 '신민으로서의 국민'으로 규정한 사례 또한 논리적으로

38) 제임스 C. 스콧 지음/전경훈 옮김, 『농경의 배신』, 책과함께, 2019, 201-235쪽.

39) 김정현, 앞의 논문, 52-53쪽.

40) 이승환, 앞의 논문, 47-50쪽.

41) 김낙진, 『의리의 윤리와 한국의 유교문화』, 집문당, 2004, 46-54쪽.

42) 이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제시한 내용으로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좋은 제안을 해준 심사위원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드린다.

로 일제가 요구한 ‘황국신민으로서의 국민’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sup>43)</sup> 즉, ‘개인’은 20세기초부터 이미 민족과 사회를 위해 동원되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왔다.<sup>44)</sup> 따라서 멸사봉공이란 표어의 출현과 수용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인류사적 배경과 조선에도 존재했던 집단 우선의 관념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1937년 이후 일제의 전시 파시즘 시기에는 이런 논리의 극단에서 ‘멸사봉공’을 강조하며 집단을 위한 개인의 기부, 희생과 봉사를 한 인물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보인다. 1937년 11월의 일본어 기사에서는 대구에 사는 일본인 목장주가 사재를 털어 기부하거나 부회원의로서 자신이 속한 마치(町)와 부(府)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미담’이 나온다.<sup>45)</sup> 1937년 12월에는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설립되었던 노량진 소방조가 소방규칙에 따라 해산하면서 분골쇄신의 봉공을 한 이들에게 표창했다는 기사도 실렸다.<sup>46)</sup> 1938년 1월의 기사는 대구남 명보통고등학교를 소유한 김태원(金台原)이 교육계에 기부한 내역을 주로 소개했다.<sup>47)</sup> 김태원은 기사 말미에서 ‘사람으로 난 이상 사회의 일원으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일을 해야 할 것이니 그 사업에서 얻은 재물은 개인의 이욕만 채우지 말고 유용하게 써야 된다’고 하면서 교육사업에 진력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표 2> 집단을 위해 멸사봉공을 수행한 인물을 강조하는 기사는 1943년 10월 몽강

43) 김소령, 「한말 계몽운동기 교과서(教科書) 속의 “國民” 인식」, 『대동문화연구』 63, 2008, 292-293쪽. 물론 일제하 국민 개념은 애국계몽운동기의 국민 개념과 사상적으로는 연속적일 수 있어도 정치적 범주로는 매우 다른 종류였다(박명규,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09, 103쪽.

44) 윤상현, 「관념사로 본 1910년대 ‘개인’ 개념의 수용 양상 -유명론적 전환과 개체로서 ‘개인’」, 『인문논총』 76-2, 2019, 219-220쪽.

45) 《조선시보》 1937년 11월 23일 「慶北, 隠れた滅私奉公者」.

46) 《조선일보》 1937년 12월 15일 「廿年の歴史있는 鷺梁津消組解散」.

47) 《조선일보》 1938년 1월 1일 「滅私奉公이日常信條 一念은人材養成罃」.

연합자치정부의 강역까지 진출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류민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인물로 소개하는 기사까지 이어진다.<sup>48)</sup>

<표 2>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人材養成, 社會事業, 教育事業 綴字統一의 旗幟, 統一, 全部, 聖經綴字改定の 歷史的 妥當性	滅私奉公이 日常信條, 物質的으로 功勞, 物質的 援助, 寄付, 巨金을 喜捨, 自進寄付, 社會의 一員으로 그 責任을 다하도록 일을 하여야 할 것, 盡力 滅私奉公의 精神, 總會의 決議에 應從, 全教徒一致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大邱南明普教, 金台原 李聖柱, 新綴字聖經	個人的 利慾 바리새교인의 外飾, 一時自己의 意見, 部分

이처럼 '멸사봉공'을 실천한 인물의 행위는 조선총독부에서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피식민지인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포상을 내린 '기부'와 '교육봉사', '근로봉사', '사회봉사' 등과 겹치는 측면이 있다.<sup>49)</sup>

심지어 멸사봉공이라는 명목으로 집단을 위해 강제로 동원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일을 미화하는 기사도 있다. 1938년 7월 2일의 기사는 부안의 한 마을에서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많은 공헌을 해왔던 간부 두 사람이 부인들의 옥외노동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마을 부녀자 60여명

48) 《매일신보》 1943년 10월 31일 「蒙疆建設의 巨步 蒙疆開拓의 先發隊 - 滅私奉公의 青年」.

49) 일제강점기의 포상정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선영, 『식민지 조선의 포상정책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참조.

을 총동원하여 부인단을 조직하고 모내기를 하게 하면서 공동담 10여 마지기도 경작하여 삼백여원의 삭전을 거두었다는 내용이다.<sup>50)</sup> 다른 멸사봉공 사례처럼 본인의 희생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담 경작에 부녀자를 강제로 동원한 일임에도 이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다.

1938년 3월 기사를 보면, 개신교에서 성경 한글 번역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시 자기 의견에 불합치됨이 있더라도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총회의 결의에 응종(應從)’해야 한다면서 ‘부분은 전부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sup>51)</sup> 이러한 의미장에서는 ‘공’에 내재된 ‘옳음’에 대한 관념은 ‘역사적 타당성’이라는 표현에서 얼핏 보이긴 하지만, ‘사’이자 ‘부분’에 속하는 자기 의견보다는 ‘공’이자 ‘전부’인 총회의 결의가 우위이므로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집단주의적인 관점이 두드러지고 있다.(<표 2>)

## 2. 1937년, 전쟁 미화의 프로파간다

역사적 개념으로서 멸사봉공 표어는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전시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에서 1945년의 패전으로 미국에 항복하는 시기인 일제 파시즘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의 멸사봉공과 다르게 전쟁을 미화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라고 선동하는 일제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로서 등장하고 있다.<sup>52)</sup> 먼저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학교와 종교단체에 통

50) 《동아일보》 1938년 7월 2일 「婦人屋外勞働」.

51) 《동아일보》 1938년 3월 3일 「聖經綴字改正의 歷史的妥當性(完)」.

52) 《조선일보》 1937년 7월 31일 「北支事變에直面하여 輕舉妄動을慎戒하라」.

침을 보내 '북지사변(北支事變)'에 대해 교육하도록 하면서, 특히 학생들은 '멸사봉공의 정신'을 함양하게 하도록 했다. 이후 훈시나 담화의 형태로 다방면에 걸쳐 멸사봉공을 외치며 전쟁 동원을 미화하고 선동하는 기사들이 보인다.<sup>53)</sup>

이처럼 전쟁을 미화하는 기사의 의미장에서는 계열관계에 전쟁을 미화하는 표현들이 다수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1937년 7월 당시 미쓰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경무국장의 시국강연 방송에서부터 이미 '북지사변'은 어디까지나 중국군의 선공으로 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의로운 일본'은 평화롭고 '명량'한 동아시아의 신천지를 건설하고 '조국(肇國)의 대이상'인 '동양 영원의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전쟁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반도민중'은 충성한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인 충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총재 가와시마 요시유키(川島義之)의 인사 기사에서는 멸사봉공을 거론하며 전쟁을 미화하고 참여를 선동하기 위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sup>54)</sup> 우선 '소(小)의 자기를 멸하고 군국(君國)의 대(大)에 봉공'하라고 하며, 私=小=自己와 公=大=君國을 대비시키고 있다. 일종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계열관계에서는 신체제, 고도국방국가체제, 신동아, 세계인류의 복지, 혼연일화(渾然一和)의 낙토(樂土) 등의 표현들로 일본제국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멸사봉공의 내용을 구성하는 통합관계의 표현들은 구체적인 사안이 적시되기보다는 국가를 위해 신민

53) 일제 파시즘기 언론의 대중동원 논리 전반에 대해서는 정혜인, 『전시총동원체제가 일제의 언론 통제와 동원』,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21, 149-164쪽, 176-194쪽 참조.

54) <<동아일보>> 1938년 12월 7일 「總動員의 強化圖謀 長期建設에 邁進 國民精神總動員」.

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 위주이다. 특히 내선일체의 실현을 위해 ‘반도민중’은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여 ‘인류애가 풍부하고 웅대한 세계적 일본국민의 유력한 구성분자’가 될 때까지 신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해야 ‘반도민중의 복지’도 발전된다고 말하고 있다.<sup>55)</sup>(<표 3>)

이외에도 전쟁을 정당화하고 전쟁동원에 참여하기를 선동하는 많은 기사에서도 위의 표현 이외에 ‘위업’이나 ‘성업(聖業)’, ‘팔굉일우(八紘一宇)’ 등 다양한 표현이 등장한다. 하지만 대체로 의미장의 배치는 이와 대체로 비슷하게 계열관계에서는 전쟁을 미화하는 표현이, 통합관계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보다는 의무와 희생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언급되며, 기능적 반의어에는 별다른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표 3> 가와시마 요시유키 총재가 발언한 ‘뎀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長期建設, 新支那建設, 東亞의 協同體, 八紘一宇, 內鮮一體, 新東亞建設, 日本精神, 君國의 大, 半島民이 眞實한 日本國民으로서 雄飛함에 의하여서만 賦與할수있는 世界의 大國民으로서 가장 빛나는 榮譽, 皇室의 宏大無邊한 鴻恩, 人類愛에 豊富한 雄大한 世界的	總動員의 強化圖謀,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思想的 努力, 幾多犧牲을 한 皇軍의 奮戰力鬪, 國民各自가 全部다 思想戰經濟戰의 戰士, 國家에 盡力, 國民의 精神의 團結을 一齊鞏固, 國民精神總動員의 強化, 內鮮一億의 同胞가 統合, 不退轉의 覺悟, 半島의 民衆이 自發的으로 披瀝한 愛國의 行爲, 各自의 本分, 義務, 分擔을 完全히 遂行하고 完成, 日本精神을 體得, 小의 自己를 滅하고 君國의 大에 奉公, 今後

55) 이처럼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위해 실천이 필요하며 그 실천은 전쟁 협력이라는 주장은 일제 뿐만 아니라 일제에 협력하던 조선 지식인들도 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수현,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 지식인의 체제협력 양상과 논리 - 신문·잡지의 친일 글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 2006, 183-188쪽 참조.

日本國民, 人類愛에 豊富한 雄大한 世界的日本國民의 有力構成分子, 皇國日本の 發展, 東洋平和의 確立, 世界人類의 福祉, 崇高重大한 日本의 使命, 國民精神, 半島民衆의 福祉, 渾然一和의 樂土	幾多의 努力, 半島民衆에게 賦與된 歷史的 大使命, 熱烈한 愛國의 至誠, 使命達成에 協力邁進, 國民精神運動, 滅私奉公의 一念, 碎勵의 誠, 國策에 順應協力, 官과 步調를 加치하면서, 自發的으로 日本臣民으로서 當然한 責務를 다하기, 臣民으로서의 本務를 遂行, 渾然一和, 各位와 加치 努力
<b>역사적 사실</b>	<b>기능적 반의어</b>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總裁 川島義之, 學制改革, 志願兵制度, 半島民衆	小의 自己

기능적 반의어까지 상세하게 등장하면서 멸사봉공의 의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는 국민총력연맹의 실천 요목과 중점을 설명하는 1941년의 기사이다. 여기서는 멸사봉공이 ‘국가를 위하여 온갖 희생을 한다’라거나, ‘사사(私事)를 버리고 공사(公事)에 봉공하자는 것’, ‘자기를 버리고 천황께 귀일하여 전아(全我)를 들어 국가에 바치자’는 뜻이라고 직접 정의하고 있다. 멸사봉공을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국력을 배양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책에 따라 자기 직역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예시로 공장이나 농사에서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sup>56)</sup>

기능적 반의어에서는 없어야 할 ‘사’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상세히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사(私事), 자기, 자아, 자기의 이익과 생활, 사익과 같은 표현 이외에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민주주의 등이 보인다. 즉 서구의 근대적 사상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이익의 추구 행위에 관한 표현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의미장이 구성되어 있다.(<표 4>)

56) <<매일신보>> 1941년 04월 05일 「滅私奉公-總力聯盟實踐要目重點」.

<표 4> 전쟁 동원 선동을 위한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國策을 完遂, 新體制運動, 高度國防國家 體制, 公事, 天皇, 國家, 日本精神, 全體主義, 國力을 培養, 政策, 時艱克服	滅私奉公, 國民의 滅私奉公精神의 發揚, 一億一心 全國이 한마음 한 뜻, 국가를 爲하여 온갖 犧牲을 한다는 滅私奉公 精神, 各其 마튼바 職域에서 奉公의 精神을 發揚, 私事を 버리고 公事に 奉公, 自己를 버리어 天皇께 歸一, 全我를 들어서 國家에 바치자는 뜻, 天皇을 爲하여 일하고 일하여 어든 結果도 天皇께 바친다는 정신, 自己를 버리어 天皇께 歸一하고, 全我를 들어서 國家에 奉仕한다는 精神, 奉公의 精神, 國策에 順應, 지도방침에 따라 日常生活, 自己가 마튼 職域에서 容易히 日常實踐할수 잇는 것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總力聯盟運動 ,	職業, 階級, 私事, 自己, 全我, 歐米의 自由主義 思想, 自我라는 觀念, 個人主義, 利己主義, 民主主義 思想, 自己의 利益, 自己의 生活, 自己의 物건은 自己 마음대로 한다는 觀念, 自由主義, 私益, 利益, 自己집 形便상 利得

1945년의 「社說 - 滅私之秋」에서는 ‘사’에 해당하는 개념이 전 국민이 하나로 뭉쳐 분투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로 확장되는 전체주의적 경향이 보인다. 즉, ‘彼, 汝, 我’도 없고 사농공상과 같은 직분의 구별도 없고, 계급과 빈부의 차이도 없다고 하면서, 소아적인 집념과 일체의 사, 즉 재물, 지위, 영욕,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생사나 부득이한 사정, 한 몸의 보전 등 ‘사’에 관한 애착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7)</sup> 이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패색이 짙어져 감에도 끝까지 옥쇄(玉碎)하기를 요구하는 시점이라 전 국민의 일치단결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야 한다는 수준까지 변화했다고 생각된다.

57) 《매일신보》 1945년 6월 12일 「社說 - 滅私之秋」.

이러한 전쟁 미화의 프로파간다로서 인용된 멸사봉공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은 전쟁에 대한 동원을 찬양하고 선동하는 방향으로 연결된다.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선인 지원군이나 징병 관련해서 《매일신보》 등 당시 신문은 병역제도의 의미를 과대 선전하고, 병역제도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응을 미화하는 방식으로 선동하고자 했다. 선동 논리는 시혜론, '보은론', '내선일체론'으로 조선인의 애국심에 대한 천황의 시혜이므로, 조선인은 황국의 신민으로서 보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내선일체를 이룰수 있다는 논리이다.<sup>58)</sup> 1943년 이후 학병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이어 학병 지원은 진정한 황국 신민화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했다. 또한 말로는 '자기결정'이라고 했지만 '국민'의 윤리적 의무이자 규범으로 지원을 강제했다. 이처럼 윤리와 규범의 차원에서 취급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회피하는 경우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행위'로 비난받았다.<sup>59)</sup>

일제는 이런 선동에 넘어가 지원하는 사례를 '멸사봉공'이라 미화하는 기사를 신문에 내보냈다.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하면서 '일사어봉공(一死御奉公)'이라는 혈서를 썼다는 《만주신문》 1939년 3월 11일자 기사가 가장 대표적일 듯 하다. 박정희는 함께 보낸 편지에 '어떠한 일신의 영달도 바라지 않고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이라고 썼다.<sup>60)</sup> 이처럼 지원병에 관한 기사는 이미 1938년부터 '나도 군인이 되어 국가에 멸사봉공하겠다'는 발언이 등장하고 있고,<sup>61)</sup> 1940년에는 박정희와 비슷하게 혈서를 써서 지원병을 소개한

58) 박수현, 「일제말 파시즘기(1937~1945) 『매일신보』의 대중선동 양상과 논리 - 지원병·징병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2011.  
 59) 윤효정, 「일제 말 『매일신보』의 조선인 학병 동원 담론의 양상과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67, 2020.  
 60) 《한겨레》 2009년 11월 5일 「박정희 만주군관학교 지원때 “목숨바쳐 충성” 혈서 사실풀」.

기사도 나오는 등,<sup>62)</sup> 황군에 지원하는 행동을 멸사봉공으로 치켜세우는 기사가 1943년까지 여러 건 등장한다.

그밖에 목숨을 걸고 싸운 지원병의 활약을 소개하거나<sup>63)</sup> 특별지원병으로 만기복무를 마치고 귀환한 병사를 환영하는 행사를 했다는 기사도 있다.<sup>64)</sup> 이중 군인에 지원하여 복무중인 군인을 찾아가 인터뷰한 기사에서는 멸사봉공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sup>65)</sup> 이 기사의 의미장에는 전쟁을 미화하는 표현이 없지만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말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정신을 길러야 한다는 표현이 배치되어 있다.<표 5>

<표 5> 지원병 관련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日本精神, 日本軍人精神, 內鮮一體, 國體, 敬神崇祖의 念, 國體, 日本特色의 國體	日本精神을 體得, 修養, 自己라는 것을 아조 이저버리고, 自己일을 생각하지 말 것, 滅私奉公, 큰 奉公, 義務, 自己를 犧牲한다는 日本軍人精神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前田氏, 鄭氏, 皇軍, 高氏, 吉田氏, 志願兵	自己, 自己를 爲해야 취할 點, 自己일, 打算的, 巧利的, 自己를 爲해야 利롭다, 一時의 名譽心, 淺薄한 생각, 自己의 職業, 家庭狀態, 就職, 援助, 宗教

61) 《동아일보》 1938년 2월 1일 「南原에도 志願兵」.  
 62) 《매일신보》 1940년 3월 3일 「滅私奉公을 血書로 嘆願-開豊의 志願兵 美譚」; 《조선일보》 1940년 3월 8일 「斷指한血書로 志願兵嘆願」.  
 63) 《조선일보》 1939년 1월 4일 「鐵骨筋우리志願兵의武勳!」.  
 64) 《조선일보》 1939년 11월 5일 「志願兵除隊奉告祭 長湍神社에서舉行」; 《동아일보》 같은 날.  
 65) 《매일신보》 1938년 5월 5일 「이 몸은 國家에 바친몸 滅私奉公만이 軍人의 覺悟와 修養」.

징용과 관련해서도 「국민징용령」이 발효된 1943년부터 멸사봉공을 혈서로 써서 징용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나,<sup>66)</sup> 국민징용령에 따라 군속으로 징용된 이들의 소감을 소개하는 기사가 나온다.<sup>67)</sup> 이 기사에 멸사봉공의 의미장도 지원병이나 징병과 비슷하게 국민의 의무로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다.

멸사봉공은 멸사와 봉공 같은 전통적인 개념의 조합으로 탄생한 표어였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멸사봉공은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관리 개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또한 공동체나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일제 파시즘기에는 집단 우선의 관념이 더욱 강화되어 개인의 희생은 정당하다는 방식으로 의미장이 구성되고 있다.

일제 파시즘 시기라는 시대적 배경에 좀 더 주목하여 멸사봉공 표어를 살펴보면, 전쟁을 미화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라고 선동하는 일제 파시즘 체제의 프로파간다(propaganda)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제는 '멸사봉공'이라는 표어를 통해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고 전쟁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과 봉사를 말로 국민의 마땅한 의무라고 선전하고 있다.

66) 《매일신보》 1942년 1월 26일 「血書에 수놓은 “滅私奉公” -徵用해주오- 哀願하는 愛國青年」.

67) 《매일신보》 1943년 1월 20일 「“滅私奉公의 一念으로 愉快하게 일합니다” 半島人海工員들의 烈烈한 感想文 - 故國의 여러분에게」.

### Ⅲ. 비일상의 일상화, ‘멸사봉공’

멸사봉공은 일제 파시즘 체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내놓은 표어였다. 이를 위해 단순히 전쟁 미화와 동원 선동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작동했다. 특히 전체주의적 성격의 파시즘 체제는 국가와 폭력 장치 같은 외부적 수단을 통한 통치에 그치지 않고 집단에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부과하고자 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을 지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sup>68)</sup> 멸사봉공이란 표어 역시 궁극적으로는 식민지에 종속된 모든 개개인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자 했던 일제 파시즘의 야욕을 보여준다. 본 장에서는 멸사봉공 표어가 억압과 통제를 표상하고 정당화하고자 의미장이 구성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 1. 억압과 강요의 표상

##### 1) 정치의 억압

일본도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적 개혁 시도가 있었고, 그 중에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1930년 이후 권력을 잡아가는 군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억압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멸사봉공은 일제 파시즘의 대두를 방해하는 정당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표어로써 기능했다.

일본은 1936년 2·26사건 이후 군부가 정치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1937년에는 군인 출신인 하야시 센주로(林銑十郎) 총리대신이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렀다. 이 와중에 각의(閣議)의 주문으로 체

68) 한나 아렌트 지음/이진우·박미혜 지음, 『전체주의의 기원』 2, 2006, 46-47쪽.

신성에서 보내는 선거우편의 소인표어 중 세 번째를 '멸사봉공, 정치를 위하여'로 하도록 했다.<sup>69)</sup> 이후 하야시는 담화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은 '멸사봉공의 精神으로써 국체의 본의에 기초하여 조국(肇國)의 이상을 현양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현민정치의 발달을 도모'하여 '대정익찬(大政翼贊)'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sup>70)</sup> 즉, 정치 행위의 기본 기조로써 '멸사봉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정당(民政黨)은 이러한 내각의 '멸사봉공' 발언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미 민정당은 이미 '멸사거국일치의 정신'으로 국난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현 내각이 멸사봉공의 정의와 시국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며칠 뒤에도 하야시 총리가 멸사봉공의 취지에 맞게 국가를 위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국가를 위하여 '순사(殉死)'할 결심으로 매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71)</sup>

이처럼 하야시 수상과 민정당 의원들이 서로 인용한 '멸사봉공'은 스스로의 주장을 정당화하고자 인용한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修辭), 즉 레토릭(rhetoric)으로, 이면의 정치적 의도와 달리 표면적으로는 정치인과 고위관료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미 1937년 시점에 일본의 정당들은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었으므로 이후 이처럼 서로 논박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멸사봉공 표어가 등장하는 일은 없었다.

도리어 1940년 정당해산의 명분으로 '멸사봉공의 정신'이 제시되고 있다. 즉, 성전관철의원연맹(聖戰貫徹議員聯盟)은 '신정치체제의 확립을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에 입각하여 속히 해소를 단행'하라고 기성 정당에게 권고하고 있었다.<sup>72)</sup> 이러한 기사에서 '정당'은 없애버

69) 《동아일보》 1937년 5월 4일 「時代에適合한革新을 斷行할外에無道」.

70) 《조선일보》 1937년 5월 4일 「政府聲明에對하여 民政黨反駁聲明」.

71) 《조선일보》 1937년 5월 8일 「政府의反省이업스면 議會劈頭に彈劾同盟」.

려야 할 ‘사(私)’의 영역, 즉 공(公)과 반대되는 기능적 반의어의 위치에 있다.<표 6>

이와 비슷하게 1939년에 보도된 부의원 취조사건에서는 초등학교의 조선인 교원을 위한 ‘도시수당(都市手當)’을 지급하자는 의견서를 결의했다는 이유로 조선인 의원들이 취조를 당했다. 즉, 나름의 민주적 절차를 거친 ‘의견서’조차도 ‘동아신질서의 건설, 장기 성전의 완성’을 위한 ‘거국일체 멸사봉공을 해야 할 중대 시국’에 맞지 않는 ‘경거부덕(輕舉不德)의 소치’로 취급받았다.<sup>72)</sup> 이처럼 멸사봉공은 일본군부가 민주적 정치 행위를 사(私)로 몰아가 억압하기 위한 표어였다.

<표 6> 정치적 수사로서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新政治體制의 確立	政黨解消, 解黨, 滅私奉公의 精神, 解消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聖戰貫徹議員聯盟	政黨

## 2) 개인의 희생 강요

일제 파시즘 체제는 전쟁을 미화하고 동원하며 정치를 억압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개인의 내면에까지 특정한 사고와 의지를 부과하고자 했다. 즉, 종래의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에토스(ēthos)마저 ‘사’로 규정하고 ‘공’인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는 새로운 윤리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멸사봉공이 실현된 사례에 대한 여러 ‘미담(美談)’ 기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행

72) 《조선일보》 1940년 6월 25일 「各黨에 解消勸告」; 《동아일보》 1940년 6월 26일 「議員聯盟의 新黨運動 益益熾烈化」.

73) 《동아일보》 1939년 3월 10일 「府議員取調事件」.

위를 찬양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위해 개인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극단적 행위를 '당연하고 옳다'라고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했다.

멸사봉공을 주장하며 개인의 희생을 찬양하는 '미담' 기사는 1938년에 일본어 신문 기사에서 가장 먼저 보인다. 즉, 문산역장 유영익이 장인의 죽음을 숨기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했다는 기사와<sup>74)</sup> 방공연습에 나가야 하는 시점에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어 남편이 훈련을 빠지고 간호하려 하자 책임감이 강한 아내가 나갈 것을 권유하였는데, 방공연습에 갔다 오니 아내는 사망했다는 기사이다. 일제는 이러한 '미담'을 알리기 위해 아내의 영혼을 위로하는 고별식을 개최하기도 했다.<sup>75)</sup>

한국어로 된 '미담' 기사는 1939년 《매일신보》에 처음 실려있다.<sup>76)</sup> 이 기사에서는 철도국 경리과 근무하는 직원의 아들이 입원해 있다가 위독한 상태임에도 방공훈련에 참석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과 치중병(輜重兵)도 훈련 중에 병으로 사망했는데 그 부인이 오히려 생전 남편의 '큰 뜻'에 따라 편지와 현금까지 보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아내와 자식, 혹은 아버지나 장모 등 가까운 친척과 심지어 자기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국가에 봉사하는 일을 미화하는 '미담' 기사는 1944년까지 계속 소개되고 있다.

멸해야할 '사'와 봉사해야할 '공'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1940년의 일본어 기사와 한국어 기사에 나오는 의미장을 분석해 보자. 계열관계에는 일제가 전쟁선전을 위해 내세운 '동아신질서'나 '성전'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보이고, 통합관계에서는 이를 위해 충후에

74) 《조선신문》 1938년 8월 24일 「汶山驛長の滅私奉公, 舅の死秘して出動」.  
 75) 《조선신문》 1938년 9월 23일 「重態の妻を殘して防空演習に出動, 悲痛歸り見れば既に空し, 滅私奉公の華」.  
 76) 《매일신보》 1939년 9월 17일 「感激할美談二題 - 銃後國民滅私奉公의 龜鑑」.

서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의 죽음마저도 감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 기사의 경우, 남편이 병세가 위독한 아이를 보고 주저하자 아내가 ‘집안일은 걱정마시오’라고 하면서 남편을 내보냈으며, 아이가 죽은 소식도 훈련이 끝난 다음에서야 알렸다는 내용이다.<sup>77)</sup><표 7>

<표 7>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興亞の配給基地, 東亞新秩序建設の協力, 愛國, 성진, 국방의 충실함	滅私奉公を 專念, 激務, 各官民有志の協力, 銃後の御奉公, 銃後の赤誠遂行, 全快し滅私奉公の限りをお盡しす, 男便の 使命, 불면불휴, 멸사봉공의 일례, 훈련, 멸사봉공의 정신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太田忍, 仁川, 仁川港, 木浦, 경방단 방공연습. 朱永福	私の 病床, 腦溢血, 愛兒의 凶報, 병세가 위독한 자기 아이, 집안일, 연습에 방해, 참사

하지만 이런 ‘미담’처럼 가족의 죽음, 특히 부친상까지 숨기며 근무하는 일은 조선시대 기준으로 아주 극심한 불효였다. 그렇기에 관료라도 부모의 상이 있을 경우 관직에서 물러나 삼년상을 치르는 게 보통이었다. 드물게 기복(起復)이라 하여 다시 관직에 복무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1895년 갑오-을미개혁 이후에는 근대국가로 전환됨에 따라 유교 윤리가 약화되어 삼년상 중에도 기복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효를 중시하여 기복에 대한 반대가 심했다.<sup>78)</sup>

77) 《조선신문》 1940년 1월 9일 「滅私奉公を專念!, 太田忍氏病床で語る」 ; 《조선일보》 1940년 3월 19일 「模範할愛國女性」.

78) 안호용, 「조선시대의 삼년상과 기복제도」, 『한국사회』 15-2, 2014.

게다가 아무리 급해도 상례(喪禮) 자체를 미루고 관직에 복무하는 경우는 없었다.

심지어 불과 30년 전인 1908년 당시 13도 창의군의 총대장 이인영(李寅榮)은 조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의병을 이끌고 서울로 진공하던 도중에 부친상을 당하자 총대장 자리에서 물러나 낙향했다. 이는 공과 사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특수한 사례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근대 이후에는 이인영의 행동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조차 위정척사 계열의 사상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제 파시즘의 관점에서 이러한 '개인의 사정'은 박멸해야 할 나약함에 불과했다. 따라서 멸사봉공 표어는 전통 시대의 유교 개념에서 일부 영향을 받았을지라도, 실제로는 전통시대와 근대 사이에서 보이는 윤리의 단절과 가치의 전도를 단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일제는 다양한 소재의 기사에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미화하는 사고를 주입하고자 했다. 예컨대 유경옥(俞珪卿)은 미국에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적국 여성'인 미국 여성에 대해 개인 본위라서, 어버이에 대한 효심과 양보주의가 부족하고 멸사봉공을 모른다고 비판하고 있다.<sup>79)</sup> 경제불황과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식량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공출을 진행하던 1942년 무렵의 기사에서는 나라를 위하여 개인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공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미담'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즉, 가난하거나 가뭄이 들어 공출이 배정되지 않았음에도 '총후의 생산전사'로서 자진해서 공출했으며, 황해도 순사는 고열로 고생하면서도 출근하여 공출을 독려했고, 심지어 장남까지도 공출의 책임을 다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애국반에서 곡식의 밀매와 비밀반출을 단속해서 공출을 달성했다

79) 《매일신보》 1941년 12월 23일 「내가 본 米國 女性 敵國 女性의 批判 - 개인 만족 제일 멸사봉공을 모른다」.

는 사례도 같이 실려있다. 특히 탄광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쌀의 비밀거래에 대해 ‘비국민적 수치’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sup>80)</sup>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패색이 짙어져 가던 1944년의 기사에서는 병에 걸린 아내가 ‘남편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몸, 초개같은 이 여자로 말미암아 마음을 번거롭게 할까 보냐’라고 하면서 해군에 징용된 남편에게 자신의 병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죽었다는 내용을 필두로 징용과 관련된 여러 ‘멸사봉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증산을 위해 ‘일신의 사사로운 사정’을 일체 무시하고 전력증강을 위해 징용에 참여한 결의와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쓰고 있다. 예컨대 징용되어 일하면서도 현금을 냈다거나, 아우가 죽은 당일 혹은 아버지 장례식날임에도 징용에 출두했다거나, 지주의 아들이면서도 징용에 나갔다가, 어머니가 죽은 소식을 징용간 아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했다거나, 징용 갔다 사망한 이의 유족에게 지급된 부조료 일부를 비행기 자금으로 현금했다는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sup>81)</sup>

심지어 애마좌담회(愛馬座談會)를 열어 군마(軍馬)의 멸사분투(滅私奮鬪)를 기렸다는 기사도 있다.<sup>82)</sup> 예를 들면 대포를 끄는 말이 사망하자 대신 연결한 말이 필사적으로 끌었다거나, 말이 사납게 행동하는 걸 보고 적의 습격을 알아차려 겨우 목숨을 건졌다는 등 말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다는 체험담이다. 이처럼 짐승의 행동을 인간적 시각으로 미화시키는 이야기는 일종의 ‘투사(投射)’로 국가를 위한 자기희생을 당연한 일로 암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80) 《매일신보》 1942년 12월 24일 「滅私奉公精神發露, 米穀供出에 핀 가지가지 美談」

81) 《매일신보》 1944년 8월 23일 「驕敵擊滅은 오직增産뿐 徵用의 大任을 完遂-報國一念에 불타는 滅私奉公美譚」

82) 《매일신보》 1941년 10월 28일 「無言의 戰士에 感謝 愛馬座談會 主人爲해서 滅私奮鬪-愛馬 때문에 勇士도 눈물을 흘린다」.

고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일제도 1910년부터 유교적 에토스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고방식을 주입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반대로 일제는 1930년대 초반까지 정절과 봉양과 같은 효행을 표창했다.<sup>83)</sup> 물론 이런 표창은 전통시대처럼 효라는 유교윤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지 않았다. 이 역시 식민통치의 일환으로 식민 정책에 대한 순응을 유도하고자 '선량한 국민 만들기'를 위한 의도에서 거행되었다.<sup>84)</sup> 하지만 일제 파시즘기에 들어서는 193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감소하면서,<sup>85)</sup>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윤리가 새롭게 강조되면서 많은 '미담'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이는 이 멸사봉공의 표어가 일제 파시즘기의 역사적 현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또한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면서 유교적 에토스를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조선의 전통적 유교문화와는 단절적이며 차라리 일본의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공과 사' 관념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나아가 근대의 병리인 파시즘까지 결합하면서 더욱 뒤튼린 형태로 출현한 극단적이고 특수한 사고방식을 표상하는 표어가 바로 '멸사봉공'이라고 생각한다.

## 2. 경제적 통제와 규율의 정당화

1차 대전 이후 전쟁은 군인들이 싸우는 전선에서만 이루어지지

83) 박선영, 「일제강점기 효행표창 현황과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54, 2016, 423-426, 429-432쪽.

84) 박선영, 「일제강점기 '유교적인 것'의 내면화 -효행 표창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6, 2021.

85) 박선영, 「일제강점기 효행표창 현황과 성격」, 423-426쪽.

않고 국가의 총력을 모두 동원하여 싸우는 총력전이 되었다. 일본도 이미 1차 대전을 관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sup>86)</sup> 거기에 중일전쟁이 장기화되자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생산력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sup>87)</sup> 이로 인해 조선인을 병력으로 동원하는 일 이외에 군비확충을 위한 경제통제를 정당화하는 표어로서 멸사봉공이 인용되고 있다. 파시즘체제를 위한 경제통제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통제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의 일상에서 일어난 재생산활동까지 규율하고자 했다. 즉, 멸사봉공 표어가 등장하는 신문기사는 일제 파시즘이 ‘사’의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와 규율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1) 생산의 통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활동은 생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일제 파시즘 체제의 입장에서 그 생산력이 모두 전쟁을 위해 투입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기업활동에 대한 통제가 진행되었으며, 이른바 조선 반도의 병참기지화도 그러한 경제개발과 통제의 일환이었다.

일제 파시즘에 의한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는 1937년부터 사업계의 활동도 국가적 요구에 부합하는 ‘멸사봉공의 실’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일치협력한 뒤에야 경제정책의 효과적 시행이 가능하다는 유키 도요타로(結城豊太郎) 일본은행총재의 담화가 있다. 여기서는 금융조합에 속한 금융기관들이 물자를 절약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생산을 증가시키고 자원의 개발을 도모하며, 저축장려를 통해 이른바 ‘저축보국(貯蓄報國)’을 위해 노력하여 총후국민으로서 봉공해야 한다

86) 진필수, 「일제 총동원체제의 기원과 특징에 대한 재검토」, 『비교문화연구』 22-2, 2016, 434-439쪽.

87) 서정익, 「전시 일본의 총력전체제와 경제총동원」, 『사회과학연구』 22-1, 2003, 249-253쪽.

고 주장하고 있다.<sup>88)</sup>

이후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은 담화에서도 경제통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미나미 총독은 5대 정강을 구체화한 훈시 중 국가총력의 발휘를 위해 생산증강, 예산운용 철저, 경제국책 순응 등을 제시하고 있다.<sup>89)</sup> 이때 기업에 대한 통제와 동원은 여러 법령을 근거로 시행되었다.<sup>90)</sup>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서민금융인 무진업(無盡業)에서 고율의 이자로 서민의 고혈을 착취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멸사봉공의 정신'에서 채무자 중심의 경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종의 금융통제를 주장하기도 했다.<sup>91)</sup>

이러한 생산활동에 대한 경제적 통제는 어디까지나 전쟁 동원을 위한 수단이므로 계열관계에는 '고도국방국가' 등 전쟁 선동을 위한 표현들이, 통합관계에는 멸사봉공을 실천하기 위한 정신적 각오와 경제적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 배치되고, 기능적 반의어에는 이러한 경제통제를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장 배치만 보면 멸사봉공 표어의 지향점이 반자유주의적, 반자본주의적 성격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치즘은 자본주의 공황 등 근대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나타났지만 여러 측면에서 근대화의 장기적 경향을 촉진시켰다는 점을 감안해보면,<sup>92)</sup> 일제 파시즘기의 경제통제 또한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추정할

88) 《동아일보》 1937년 9월 28일 「今番의 諸措處는 惡性인플레이션의 防止策」.

89) 《동아일보》 1939년 4월 19일 「國體明徵 教學振作等 五大政綱具體化」 ; 《조선일보》 같은 날 「道知事會議開幕」 ; 「經濟國策에 順應 總力을發 揮케하라」. 미나미 지로 총독의 전시동원체제 관련 담화 등은 최혜주, 「1930년대의 한글신문에 나타난 총독정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2009, 52-63쪽 참조.

90) 서정익, 앞의 논문, 251-252, 263, 268-269쪽.

91) 《조선일보》 1939년 4월 23일 「無盡業界의自覺을促함」.

92) 데틀레프 포이케르트 지음/김학이 옮김, 『나치 시대의 일상사 - 순응, 저

수 있다.<sup>93)</sup> 즉, 선동을 위해서는 서구 근대와 자유주의, 자본주의 등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자이바츠[財閥] 중심으로 전통적 토지소유와 공동체, 노동조직 등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고도화를 통해 일본국민과 식민지인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굴러갔다.

재계인 3명의 인터뷰를 소개한 기사에서는 기업인임에도 사익 추구 대신 국가를 위해 각자 직무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들은 모두 한 회사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그들은 자기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멸사통공의 신념을 가지도록 ‘지도’하겠다고 발언하는 부분이다. 결국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업인이 아니라 기업에 속한 직원들이었다. 이 기사에서는 통합 관계에 자기 직무나 직역에 충실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조직 내 협업과 함께 시간엄수와 책임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sup>94)</sup> 이중 협업과 노동시간의 경우, 자본이 노동자로부터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95)</sup>(<표 8>)

---

향, 인종주의』, 개마고원, 2003, 263-278쪽.

- 93) 단, 일제 파시즘기에도 근대의 장기적 경향을 따랐다는 해석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관점이 아니다. 포이케르트는 “나치즘의 경향은 근대의 산업적 계급사회의 장기적인 병리적 차원을 드러낸다.”고 했다(테를레프 포이케르트 지음/김학이 옮김, 앞의 책, 278쪽). 그러므로 일본제국, 특히 전시체제가 일본제국의 파시즘 역시 이런 관점에서 ‘근대의 병리’라고 해석한다.
- 94) <매일신보> 1941년 1월 8일 「財界人の職域奉公②-滅私奉公の精神으로各自職務에就하자!」.
- 95) 자본주의의 노동시간과 협업, 분업에 관한 설명은 데이비드 하비 지음/강신준 옮김,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창비, 2011, 253-344쪽 참조.

<표 8> 재계인 인터뷰 중 '열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國防國家建設, 新體制에 依한 새로운 商道 國家 國家目的의 達成	財界人의 職域奉公, 滅私奉公의 精神으로 各自 職務에 就하자, 公益優先의 精神, 國民의 總力을 集中, 모든것을 나라에 맞춘다, 滅私奉公의 精神, 各自職務에 反省 以誠輔翼, 職域奉公, 各自職務를 誠心遂行, 滅私奉公의 誠意 奉公, 皇運扶翼의 忠誠, 公益優先의 精神, 和協相助, 時間嚴守, 責任充健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東亞合同木材社 長, 風村裕, 李鐘會, 東亞證券社長, 趙俊鎬, 義林鑛業副社長, 芝山薰, 閔爽鉉	私益, 自由主義思想, 私益追求, 自信, 會社, 自我功利의 思想

실제로 노무제한에 대한 기사에서는 임금통제와 노동시간 제한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임금통제는 노동자 쟁탈로 인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여 군수노무에 과도한 인건비가 투입되는 걸 막는 제도이고 노동시간 제한은 과도한 잔업으로 인한 노동력 소모를 예방하여 장기전에 대응하고 군수 확보와 생산력 확충하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역설적이지만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경쟁하다보니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나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 노동력의 소모 또한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sup>96)</sup> 그런데도 국가사업이나 군수

96) 실제로 나치시대에도 군수산업의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자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나마 처지를 개선하려고 개별적으로 협상하였고 그 결과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보였다(데틀레프 포이케르트 지음/김학이 옮김, 앞의 책, 166-167쪽).

산업 등은 이러한 제한의 예외로 지정하고 있으며, 말미에는 노사협조 [勞資協調]와 멸사봉공으로 총후산업군으로서의 열매를 맺자고 주장하고 있다.<sup>97)</sup> 결국 이런 노무제한은 사실상 국가와 자본에 의한 생산통제의 일환에서 시행되었으며 멸사봉공은 노동자의 희생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어였다.

## 2) 재생산의 규율

근대 자본주의 생산활동은 재생산의 영역이 떠받치고 있다. 즉, 일상 의 영역에서 노동자는 먹고 자며 내일의 노동을 위해 노동력을 재생산 하고, 나아가 가족을 구성하여 다음 세대의 노동자도 재생산한다. 이러한 재생산 영역 또한 생산력의 유지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으므로 일 제 파시즘 체제는 이 재생산의 영역 또한 규율하고 통제하려 했다.

미나미 지로 총독이 도지사회의에서 1. 흥아유신(興亞維新)과 우리의 각오, 2. 병참기지의 사명 완수 3. 총동원체제의 강화 4. 재외 조선인의 지도를 거론하면서 물가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멸사봉공 정신의 양양을 전제로 한다고 훈시했다. 구체적인 경제통제와 관련해서는 생산의 증 강이나 밀매[暗取引] 방지뿐만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 해당하는 배 급의 원활, 소비의 절약, 저축 장려도 필요하다고 발언하고 있다.<sup>98)</sup> (<표 9>)

97) 《조선일보》 1939년 8월 1일 「勞務三制度에對여하 雇人制限,賃金統制, 就業時間等」.

98) 《동아일보》 1940년 4월 24일 「總督訓示要旨」.

<표 9> 경제통제 관련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p>興亞維新, 肇國의 大理想, 天業恢弘, 崇嚴한 國體, 新秩序建設, 東亞의 平和, 新秩序를 建設하려는 聖業, 公明正大, 宏遠한 皇圖, 世界의 平和, 新秩序建設, 聖戰目的, 東亞新秩序建設, 興亞維新, 世界의 維新, 垂範의 大聖業, 興亞維新, 聖業遂行에 邁進, 內鮮一體의 眞意, 大和大愛 肇國精神, 內鮮一體의 精神, 內鮮人 相互의 幸福增進</p>	<p>上下和衷, 官民戮力, 聖旨奉體의 誠, 銃後國民의 舉國一致의 協力, 長期의 持久態勢, 長期持久의 態勢, 國民은 長期持久의 態勢, 君臣一體, 苦心準備, 犧牲, 長期持久의 覺悟, 疆內官民의 心氣自新, 人心의 緊張, 兵站基地의 使命, 盡瘁할 決意, 人的資源의 培養育成, 廣義國防産業의 發達, 國民精神運動機構의 強化, 半島民衆의 教育 及 訓練, 生産力의 積極의 增強, 生産擴充, 物價抑制, 物資需給統制의 強化, 低物價政策의 強行, 戰時經濟의 運用, 經濟統制法令의 精神, 兵站基地半島의 大任, 徹底的 生産力 增強, 低物價政策을 堅持, 總動員體制의 強化, 善隣友好, 相互扶助의 精神, 國民精神朝鮮聯盟의 運動, 農村振興運動, 時艱克服, 生業報國의 道, 治心, 國家總動員體制, 生産의 增強, 配給의 圓滑, 消費의 節約, 貯蓄勵行, 闇取引 防止, 物價調整, 滅私奉公의 精神昂揚, 國民精神總動員의 機構를 強化, 經濟力 培養에 努力, 經濟國策에 對한 徹底的 協力, 國民總訓練의 心構, 總動員體制強化, 總動員體制를 徹底, 經濟의 統制를 強化, 廉潔, 公正을 保持하도록 戒愼, 兵站基地 使命完遂, 東亞民族의 協同</p>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p>道知事會議, 男次郎 總督</p>	<p>寸豪의 私心, 闇取引, 買溜, 賣惜, 惡質의 經濟事犯, 利己의 個人的의 放縱한 觀念, 從來의 舊習, 消極的 批判의 態度, 無自覺分子</p>

1940년부터는 멸사봉공의 한 방편으로 직역봉공(職域奉公)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한다. 앞서 소개한 1938년 기사부터 이미 자신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라는 내용이 있었다.<sup>99)</sup> 이러한 주장은 1940년에 국민총력

99) <<동아일보>> 1938년 12월 7일 「總動員의 強化圖謀 長期建設에 邁進 國民精神總動員」.

운동이 전개되면서 국가와 천황을 위해 자기의 직무를 다하여 봉사한다는 뜻의 ‘직역봉공’이란 표어로 표상되었다.<sup>100)</sup> 이 역시 국민의 의무로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점은 같으므로 총력전을 위한 ‘총후국민의 멸사봉공’을 좀 더 구체화시킨 표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상 영역에서 국민의 행동을 규율하는 내용이 의미장의 통합관계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총력개풍군연맹이 결성하면서 실천사항까지 제시한 기사를 살펴보면, 멸사봉공과 직역봉공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저축과 국채 구입 등 경제통제에 대한 내용 이외에 출근시간은 물론 의복과 음식까지도 규율하고 있다.<sup>101)</sup> 심지어 ‘흰 옷’을 입지 말고 멸사봉공하자는 기사도 보인다.<sup>102)</sup>(<표 10>)

<표 10> 일상 통제 관련 기사 중 ‘멸사봉공’ 표어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國體의 本義, 內鮮一體의 實, 國防國家體制的 完成, 東亞新秩序의 建設, 皇國精神 新生活, 신생활, 이로움, 실행, 활동적	滅私奉公을 盟誓, 各其의 職域에서 滅私奉公의 誠을 다하여, 協心戮力, 銃後國民으로서 崇高嚴肅한 緊張, 一致行動, 職域奉公, 率先躬行, 節米, 貯蓄行動, 國債消化 색의(色衣), 안가는데업시 어느곳이나, 안하는일업서 무엇이냐, 할때는 전력을 다하여, 멸사봉공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開豊, 國民總力開豊郡聯盟, 愛國班 德成女子實校長, 宋今璇	宴會會食 흰옷(白衣), 卓上空論

100) 최규진, 앞의 논문, 188-189쪽.

101) 《매일신보》 1940년 12월 5일 「滅私奉公을 盟誓 總力開豊郡聯盟의 實踐事項」.

102) 《매일신보》 1940년 11월 19일 「新生活-절대로 흰 옷을 안 입고 전력을 다해 멸사봉공」.

일본은 전시체제기 당시 '국민생활'이라 하여 근로생활과 소비생활 중 개인의 사적 활동인 소비를 특히 규율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는 '절미(節米)'와 '국민복'을 강요하고, '건전'한 국민문화를 위해 사치와 향락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03)</sup> 이처럼 일제는 전시체제기에 일상과 가정경제라는 사적 영역까지 통제하고 규율을 강요하여 '멸사'를 통해 '봉공'을 실천하고자 했다.

멸사봉공 표어는 전쟁 미화와 동원 선동에 그치지 않고,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멸사봉공은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표어였으며,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과 윤리의식을 주입하고자 했다. 특히 가족의 죽음까지 숨기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던 사례를 찬양하는 기사는 전통적인 유교적 에토스를 없애야 할 사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멸사봉공이란 표어는 조선의 전통적 유교문화와는 연속성보다는 단절과 간극이 더 크며 근대적 병리인 파시즘의 출현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사고방식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20세기의 전쟁은 총력전이었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전쟁 지속을 위한 생산력의 확충과 유지가 중요한 문제였다. 멸사봉공은 침략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비 확충을 위해 경제의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에 대한 통제과 규율을 정당화하는 표어였다. 나아가 재생산 영역까지도 통제하여 일상 영역에서 국민의 행동을 규율하고 있었다. 즉, 전체주의적 성격의 일제 파시즘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03) 일상생활의 통제에 관해서는 공제욱, 「전시동원기 일제의 의복통제와 국민복」,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9, 2006 ; 이송순, 「일제말 전시체제하 '국민생활'의 강제와 그 실태 -일상적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4, 2011 참조.

## IV. 맺음말

렬사봉공이란 표어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 파시즘 시기에 출현한 근대의 병리적 현상을 표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전체주의적 혹은 파시즘적 맥락과 상관없다는 듯 21세기인 현재까지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제 파시즘기 신문매체에 등장하는 ‘렬사봉공’ 표어의 의미장을 분석하여 그 맥락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렬사봉공은 렬사와 봉공 같은 전통적인 개념의 조합으로 탄생한 표어였다. 일반적으로 렬사봉공은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관리 개인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즉, 관리가 새로 취임하면서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거나 공무원의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훈시에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나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의미도 이미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일제 파시즘기의 렬사봉공 표어도 이러한 집단 우선의 관념을 드러내고 내면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렬사봉공 표어는 일제 파시즘 시기에 등장했다. 실제로 의미장은 전쟁을 미화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라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propaganda)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계열관계에서는 ‘성전(聖戰)’처럼 전쟁을 미화하는 표현이 나오고 기능적 반의어에서는 자기와 자신의 이익은 물론 서구의 근대적 사상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관념 및 이익의 추구 행위에 관한 개념이 없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렬사봉공의 구체적 실천 방식으로는 지원 병이나 징병을 찬양하고 선동하면서 전쟁 동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렬사봉공’이라는 표어를 통해 일제는 침략전쟁을 성전으로 미화하고 있으며 전쟁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희생과 봉사가말로 국민의 마땅한 의무라고 선전하고 있다.

멸사봉공 표어는 전쟁 미화와 동원 선동에 그치지 않고, 봉공에 방해가 되는 '사적 영역'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정치적으로 멸사봉공은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표어였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을 찬양하는 미담을 통해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과 윤리의식을 주입하고자 했다. 특히 전통적인 유교적 에토스를 없애야 할 사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멸사봉공이란 표어는 조선의 전통적 유교문화와는 단절되어 있으며 근대적 병리인 일제 파시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사고방식을 표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20세기의 전쟁은 총력전이었고 전쟁이 장기전으로 비화되면서 생산력의 확충과 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멸사봉공은 일제 파시즘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의 생산영역과 재생산영역에 대한 통제와 규율을 정당화하는 표어였다. 특히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한 통제는 국가와 자본에 의한 생산통제의 일환이었다. 나아가 재생산영역인 일상에서까지도 국민의 행동을 규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멸사봉공이라는 표어는 일제 파시즘이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자 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분석은 일부 신문매체를 대상으로 한정된 범위의 자료만 검토하였으며, 멸사봉공과 경합했을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까지는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역사적 관점에서 멸사봉공 표어와 전체주의 혹은 파시즘과의 관계, 여러 유사한 유교적 개념과의 차이의 정도,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왜 아직까지 멸사봉공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음에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멸사봉공이란 표어로 표상되는 일제 파시즘기의 사회는 현대 한국사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 만은 분명하다. 당장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학교와 종교

단체에서 ‘북지사변’에 대해 교육하고 ‘멸사봉공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45년 해방 직전까지 교육받은 이들이 해방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 자리를 잡았다.<sup>104)</sup> 따라서 이들에 의해 건설된 국가와 사회가 일제 파시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고 부족한 점과 한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논문접수 : 2022.12.16., 심사시작 : 2022.12.23., 심사완료 : 2023.01.09.]

---

104) 이 점 역시 심사의원이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 전망으로 제안한 내용으로 필자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 <참고문헌>

『서경』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시보》,  
《조선신문》, 《조선일보》.  
《충북일보》, 《한겨레》.

빅카인즈([www.bigkinds.or.kr](http://www.bigkinds.or.kr)).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nl.go.kr/newspaper](http://nl.go.kr/newspaper)).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http://newslibrary.naver.com)).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100([newslibrary.chosun.com](http://newslibrary.chosun.com)).

동아디지털아카이브([donga.com/archive/newslibrary](http://donga.com/archive/newslibrary)).

공제욱, 「전시동원기 일제의 의복통제와 국민복」, 『민주사회와 정책 연구』 9, 2006.

곽금선, 「1898년 독립협회의 정치기획과 ‘충군애국(忠君愛國)’」, 『역사와 현실』 107.

김경래, 「조선 공론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제안 -이이의 공론개념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5, 2012.

김경욱, 「공공성(公共性) 관점에서 본 일본(日本)의 전통적 공(公)·사(私)관」, 『일어일문학연구』 73-2, 2010.

김소령, 「한말 계몽운동기 교과서(教科書) 속의 “國民” 인식」, 『대동문화 연구』 63, 2008.

김정현, 「동아시아 공(公)개념의 전통과 근대 공동체의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3, 2008.

김종식, 「근대일본의 관료규율 형성에 대하여 -1882(明治15)년 행정관리 복무기율의 제정을 중심으로」, 『사림』 35, 2010.

- 김학이, 「롤프 라이하르트트의 개념사」,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09.
-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2011.
- 데이비드 하비 지음/강신준 옮김, 『데이비드 하비의 맑스 『자본』 강의』, 창비, 2011.
- 데틀레프 포이케르트 지음/김학이 옮김, 『나치 시대의 일상사 - 순응, 저항, 인종주의』, 개마고원, 2003.
- 문경득, 「‘조선유학’과 ‘조선유교’ 표현의 개념사」, 『역사연구』 43, 2021
-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지음/고희탁 옮김, 『한단어 사전, 공사』, 푸른역사, 2013.
-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09
- 박선영, 「일제강점기 효행표창 현황과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54, 2016.
- 박선영, 「일제강점기 ‘유교적인 것’의 내면화 -효행 표창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6, 2021.
- 박수현, 「일제말 파시즘기(1937~1945) 『매일신보』의 대중선동 양상과 논리 - 지원병·징병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2011.
- 박수현, 「전시파시즘기(1937-1945) 조선 지식인의 체제협력 양상과 논리 - 신문·잡지의 친일 글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6, 2006.
- 방기중, 「일제파시즘 인식의 혼돈과 재인식의 방향 - 최근 일본학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식민지 파시즘의 유산과 극복의 과제』, 도서출판 혜안, 2006.
-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공과 사」, 『역사용어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 서정익, 「전시 일본의 총력전체제와 경제총동원」, 『사회과학연구』 22-1, 2003.
- 설주희,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유교 윤리 소환과 경제 갱생 프로젝트 - 익산문묘(益山文廟)를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41, 2020.
-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위험성』, 너머북스, 2012.
- 윤상현, 「관념사로 본 1910년대 ‘개인’ 개념의 수용 양상 -유명론적 전환과 개체로서 ‘개인’」, 『인문논총』 76-2, 2019.
- 유효정, 「일제 말 『매일신보』의 조선인 학병 동원 담론의 양상과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67, 2020.
- 이송순, 「일제말 전시체제하 ‘국민생활’의 강제와 그 실태 -일상적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4, 2011.
- 이승환, 「한국 및 동양의公私觀과 근대적 변용」, 『정치사상연구』 6, 2002.
- 인샤오싱(殷曉星), 「일본의 향약 이론의 수용과 변용 -근세에서 근대로」, 『공존의 인간학』 1, 2019.
- 정혜인, 『전시총동원체제기 일제의 언론 통제와 동원』,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21.
- 진필수, 「일제 총동원체제의 기원과 특징에 대한 재검토」, 『비교문화연구』 22-2, 2016.
- 최규진, 「전시체제기 ‘멸사봉공’의 신체, 일본정신과 무도(武道)」, 『역사연구』 44, 2022.
- 황병주, 「식민지 시기 ‘공’ 개념의 확산과 재구성」, 『사회와 역사』 73, 2007.

<Abstract>

**The semantic field of slogan of ‘self-annihilation for the sake of country(滅私奉公)’ during the Japanese Fascism Period(1937~1945)**

Mun, GyeongDeuk

The Korean word ‘Myeol-Sa-Bong-Gong(滅私奉公)’ means ‘sacrificing an individual for the country’ and also means ‘abandoning self-interest and striving for the public good.’ However, this slogan has been appearing since 1937 when Japanese fascism emerged. This is a slogan for Japanese fascism and a concept that represents society at the time. This paper applied the conceptual history methodology to analyze the semantic field of the slogan ‘Myeol-Sa-Bong-Gong’ appearing in the newspaper media.

‘Myeol-Sa-Bong-Gong’ is a slogan created by combining traditional concepts such as ‘efface oneself(滅私)’ and ‘public duty(奉公)’. Therefore, it was used to demand the morality of officials serving the public, or emphasized individual sacrifice and service for the community or state. However, the slogan was actually a propaganda that glorified the war and instigated it to sacrifice its life for the nation.

Furthermore, this slogan also implies the meaning of oppression and control of the ‘private area’ that hinders sacrifice for the state. Politically, it justifies the oppression of democratic activities. It also tried to instill a mindset and ethical consciousness that takes individual sacrifice for the state for granted. In particular, unlike the general view, this slogan

is separated from the traditional Confucian culture of Joseon, and represents Japanese fascism, a modern pathology.

It also served as a slogan to justify control over the production area of the economy to support the invasion war of Japanese fascism. In particular, control over working hours and wages was part of production control by the state and capital. Furthermore, even in daily life, which is a reproduction area, the behavior of the people was regulated. Therefore, the semantic field of the slogan 'Myeol-Sa-Bong-Gong' shows that Japanese fascism ultimately tried to dominate all areas of people's lives.

Key words : Conceptual history, public, private, totalitarianism, fascism, imperialism of japan, economic control, life control

